

# 민천주보

제2834호

2024년 7월 7일 | 연중 제14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가족사진 <역곡2동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본당>, 1988년 설립

## 입당송 | 시편 48(47), 10-11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 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 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 제1독서 | 예제 2, 2-5

회답송 | 시편 123(122), 1-2 7. 2. 2. 3-4 (◎ 2. 2. 2.)

-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보소서,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
-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서. 저희는 죽도록 멸시만 받았나이다. 거만한 자들의 조롱을,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 저희 영혼이 죽도록 받았나이다. ◎

## 제2독서 | 2코린 12, 7-10

복음 환호송 | 루카 4, 18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음 | 마르 6, 1-6

영성체송 | 시편 34(33), 9 참조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 하느님 사랑이 나를 통해 전해지길!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 분을 만납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에제 2,4)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에제 2,2-5 참조. 제1독서) 바오로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약점까지도 자랑하고 어떤 모욕과 역경도 달갑게 여긴다고 고백합니다.(2코린 12,7ㄴ-10 참조. 제2독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 시기와 질투로 무시당하시며 배척받으십니다.(마르 6,1-6 참조. 복음)

## 자세히, 오래 보아야

저의 약점 중 하나는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머리 모양이 바뀌고 옷만 바꾸어 입어도 몰라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안하고 민망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때는 그저 하늘만 바라봅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더 가까이 세밀하게 진심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니면 말고

박찬욱 영화감독은 딸이 학교에서 가훈을 적어내라는 숙제를 받아 ‘아니면 말고’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현대인들은 자기 의지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오만한 태도다. 세상에는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닥쳐오는 좌절감을 어쩔 것인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툭툭 털어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이 경쟁 만능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포기의 철학, 체념의 사상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가족들을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지난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썰렁합니다.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는지 놀라

워하면서도 못마땅해합니다. 살짝 당황스럽기도 하고 섭섭해하시는 예수님. ‘예언자는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마르 6,4 참조)라는 말씀을 남기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사제로 살며 교우들이나 동료 사제들에게 무언가 제안할 때 반응이 시큰둥해서 제가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모두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 보지만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못한 걸 하려 했으니 어리석었습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말이 위안이 됩니다. 말로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를 되뇌었지, 행동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 Let go, Let God!(냅뒤, 한님하시게)

올해 초, 『풍경소리』라는 잡지를 통해 아무개 목사님이 보내주신 글씨 하나를 받았습시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Let go, Let God”을 “냅뒤, 한님 하시게”로 번역해 한지에 옮겨 놓은 글이었습니다. 벽에 붙여 놓고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Let go, Let God!  
냅뒤 한님하시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교우들, 친구나 동료 사제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상처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받는 것임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이 머무를 수 있도록 기쁘게 약점을 자랑하고 싶다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전해지도록 나를 내려놓고 내어 맡기는 연습을 오늘도 해 봅니다.

## 교회들의 친교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생텍쥐페리의 유명한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사랑을 나누는 함께 걷는 길의 여정에 있는 우리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오는 구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누는 우리들의 친교는 마주 보는 친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하느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함께 나누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시노달리타스의 친교입니다.

시노드 1회기 종합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그간 시노달리타스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강렬하게 체험했던 교회들의 친교를 떠올립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노드 여정은 복음의 기쁨을 맛보는 여정이었으며, 우리는 지금도 그 맛을 찾아가고 느끼는 여정에 있습니다.

시노달리타스 여정에는 ‘교회들’이 참여했습니다. 나라별로 분화된 지역 교회들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하고 보편된(catholica)” 교회, 즉 보편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갑니다. 보편 교회를 관장하는 교황청은 각 지역의 개별 교회들을 관장하는 기구인 ‘주교회의’와 연합체를 이루어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로 함께 나아가는 여정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친교를 연결하는 자리에 주교들의 단체성이 존재합니다. 주교들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을 이루어 하나의 단(團)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역 교회의 주교단은 보편 교회의 책임자로서 교황과 일치의 친교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에 기초하여 시노달리타스 실현의 여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본당 공동체에서 나누는 체험과 의견들은 교구장 주교를 중심으로 모인 교구 공동체 안에서 취합되었고, 교구 공동체에서 취합된 의견은 지역 주교회의(예를 들어,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의견은 다

섯 개 대륙의 대륙 주교회의의 이름으로 취합되었고, 취합된 의견을 가지고 지난 10월 바티칸에서는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나누기 위해 주교, 사제,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 한 달간의 1회기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 때, 바티칸의 바오로 6세 홀이라는 커다란 강당은 가톨릭교회의 보편성이 실현되는 장소와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주교와 함께 남녀 평신도, 수도자, 그리고 사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피정했고, 성 베드로 성당에서 성찬례를 봉헌하였으며, 기도의 분위기와 성령 안에서 서로 한 달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말입니다.

시노드는 계속됩니다. 함께 걷는 여정인 시노드는 한 번의 의견 취합으로, 또 한 달의 회의로 마무리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본당과 교구, 교구와 주교회의, 지역 주교회의와 보편 교회를 잇는 고리에 엮여 있는, 한 사람의 하느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친교를 나누는 ‘친한 형제자매들’입니다.

명형진 시몬 신부 ·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교구 시노드 위원



저와한

잠시 내려두고 그냥 느껴봐요



## 성령 안의 새 생활

정경택 베드로 | 부평2동 본당

찬미 예수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유아세례를 받고 첫영성체를 하고 2018년에 견진성사까지 받았지만, 지난 몇 년간 냉담을 하였습니다. 힘들 때는 하느님을 원망했고 제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4월부터 다시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고, 6월에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얻고자 ‘제27차 청년 성령 안의 새 생활’ 피정에 참가하였습니다. 처음엔 찬양과 율동이 어색했고 조원들과 어울리기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미사를 봉헌하고 신부님의 강의를 듣고 나눔 시간을 통해 조금씩 긴장이 풀리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님의 솔직한 체험담을 듣고 저도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눔 시간에 저도 솔직하게 저의 고민과 십자가에 대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면담과 고해를 하고 신부님께 안수식을 받을 때 저에게 “아들아, 잘 왔다. 이제 너의 아픔과 걱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자, 저도 모르게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피정 안에서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친교를 나눌 때 저는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피정 이후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의지하고 생명을 맡기기로 다짐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자주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서서히 변화되어 갔습니다. 제 안의 외로움, 공허함 등이 점차 사라지고 제 마음 안에 기쁨과 충만감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루카 15,7)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루카 복음 15장의 ‘되찾은 양의 비유’ 구절을 보고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백 마리의 양 중에서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 한마리를 찾을 때까지 뒤쫓으시고, 그러다가 잃었던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니. 그 잃었던 한 마리 양이 마치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셨습니다.

인생이란 참 길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시련과 역경을 겪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모든 시련들은 제 욕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약한 것을 깨달았기에 저를 버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저희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시기에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하느님의 자녀인 저는 하느님께 붙어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평화로 가는 통로’로 받아들이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고쳐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 오직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이 영원한 평온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린아이처럼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느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평화메시지 낭독-김의중 목사, 정신철 주교, 주성식 성공회 신부



# 화합 평화 통일

## 강화지역 그리스도교 평화기도회

- 1 노래패(어깨동무) 공연
- 2, 3 평화노래 합창-‘평화를 주노라’, ‘우리의 소원’



6월 25일 천주교 인천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74주년을 기념하며,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강화도 동검도 채플갤러리에서 범종교 평화기도회를 열었다.

이번 평화기도회는 교구장 정신철 요한세례자 주교의 첫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주최하였다. 강화지역의 천주교, 감리교, 성공회 성직자들이 모여 평화와 화해를 기원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종교와 교파를 초월한 연합의 시간을 가졌다.



강화도 동검도 채플갤러리에서 열린 이번 기도회는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와 평화메시지 낭독, 음악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강화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하였다.

‘믿음과 은총’ 코너에 실릴 사진과 일상 신앙 수기를 모집합니다.

익명으로도 게재가 가능하며, 띄어쓰기 포함 1,600자 분량의 원고(A4)를 hongbo032@daum.net으로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선정 후 주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구청

24학년도 예비신학교 2학기 신입생 원서 접수

기간: 7/20(토)~31(수)까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카페

「천주교 인천교구 성소국」 참조



546차 카나혼인강좌

일시: 8/4(주일) 13:30~18:30

장소: 보니파시오 대강당

문의: 032-762-8888 가정생명사목부

노동사목 무료 노동상담

임금체불, 노동조건 변경, 고용차별, 노동안전 등

문의: 032-502-3009

교육 | 미사

예수회센터 가을학기 강좌-9월 개강

·그리스도교의 성스러운 공간과 순례: 최화선 박사

·죽음수업: 흥기령 교수

·영성과 심리의 통합 두 번째 길: 최지원 수녀

·구약성경 아카데미-구약성경의 기초: 주원준 박사

·마르코의 예수 이야기: 박상훈 신부

·삶의 의미-철학적 도발, 신학적 리액션: 김민철 신부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4박 5일] 8/7~11, 19~23

예수마음기도 [8박 9일] 8/19~27

이나시오 영신수련 [8박 9일] 8/19~27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문의: 010-9099-2337

www.jesumaum.org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일시: 7/19(금)~22(월),

8/16(금)~19(월), 9/20(금)~23(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비용: 36만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효소단식: 7/11(목)~14(주일), 8/9(목)~12(월)

성경완독: 7/26(금)~8/3(토), 23(금)~31(토)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예언서:

8/15(목)~17(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제주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여름특별피정(우도 포함 생태순례):

7/25~28, 8/2~5, 8~10, 14~17, 21~23

·성지순례(추자도 포함): 9/7~10, 10/7~10, 11/3~6

문의: 064-756-6009, 02-773-1463

7월 토요일 낮 치유 대피정

일시: 7/13(토) 12:00~17:30 미사안수 있음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중식 무료)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 성령봉사회

청년 여름(침묵) 피정

일시: 7/19 20:00~21 13:00

장소: 예수마음배움터(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21)

대상: 39세 이하 미혼 남·여

문의: 010-6327-0398 성심수녀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분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여름특별피정(우도 포함): 7/20~22, 25~28,

8/1~4, 6~8, 10~13, 24~26

추자도 포함: 9/11~14, 10/5~8, 27~30

문의: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지혜의 샘 7월 프로그램

·여름 성가정 피정: 7/8(월) 10:00~17:30

강사: 정병덕 신부, 서인석 신부, 한영임 회장

·치유 대피정: 7/22(월) 10:00~17:30

강사: 김성기 신부, 이창진 신부, 한영임 회장

·치유 피정: 7/31(수) 10:00~17:30

강사: 김성대 신부, 한덕훈 신부, 한영임 회장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지혜의 샘 5층

문의: 010-3248-9705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피정

일시: 8/29(목) 18:00~9/1(주일) 16:00

장소: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지도: 김동일 안드레아 신부(예수회)

피정비: 30만원(농협:301-0197-3172-01)

문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사회복지회 사랑의 등불 후원회 미사

일시: 7/25(목) 11:00 사회복지센터 B1

※ 8월은 후원회 미사가 없음

갯등 OB 중창단 공연

일시: 7/17(수) 19:30 영종 성당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7/9(화) 14:30 부평2동 성당

문의: 032-529-9621

가톨릭문화원 상설 음악피정미사, 무료 콘서트

일시: 매주(주일, 목) 14:00 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버스운행: 13:30

장지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옆 공영주차장

문의: 1577-3217

모집 | 일반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신청

성지 성전에 지향자 성명 각인 1인당-1백만원

10년 동안 매달 1회 미사봉헌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천사의 집 노인요양원 영양보호사 모집

교구 직영 천사의 집에서

여성 어르신과 함께하실 영양보호사 모집

장소: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318번길 30

문의: 032-435-9257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일시: (월~금) 10:00~16:00

문의: 02-990-9366

교매심리상담소(도미니코수도회)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주 1회]

문의: 010-3201-0520 상담자 노경덕 신부

해외 가톨릭 사립학교 학생 모집

대상: 초5~고2, 미국, 아일랜드, 단기 가능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해외학교법인

문의: 02-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24년 하반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교회음악가자격증 과정 모집

서울대교구장 인준의 전문 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7/8(월)~26(금)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 요망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전문

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교육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장소: 최양업 홀

(전철 1, 4호선 서울역, 2, 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 http://www.casm.co.kr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녀회 젊은이 모임**

일시: 7/14(주일) 14:00부터  
장소: 가정동 성당 303호  
대상: 만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 여성 누구나  
문의: 010-3679-7198 강 피아 수녀

**예수성심 인천천교회(재속)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남·녀 교우  
문의: 010-8752-9566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성클라라봉쇄수도원은 재건축이 불가피하여 수도원을 철거했고, 곧 공사가 시작됩니다. 도움을 겸손되이 청합니다. 후원문의: 010-6680-0692

**해외 성지순례**

8/18 베트남 하노이·사파 [5일]  
8/26 발칸·메주고리에 [12일]  
9/2 베트남 다낭 [5일]  
9/23 홍콩·마카오 [4일]  
제주·한국성지167 모집 중(인천·수원 출발)  
문의: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해외 성지순례**

9/11 추석특선-알프스와 중세수도원 545만원  
9/23, 11/18 출발-다낭 성지순례 155만원  
10/13 성모 3대 발현지 [13일] 485만원  
10/22 이탈리아 일주 [10일] 520만원  
11/18 스페인, 포르투갈 [12일] 449만원  
25/1/6(월) 과달루페 성모발현지 [10일]  
문의: 02-778-8565

**해외 성지순례**

·멕시코 과달루페 칸쿤 성지순례: 11/11(월) 출발 [10일] 前 멕시코씨티 성당 주임 신부 동행  
·베트남 다낭 짜케우 라방 성지순례: 9/9~13 [5일]  
문의: 010-8705-0319 최형베드로

**성지순례, 성베네딕도왜관(신축)수도원 전례**

8/17~19 원주7~청주5~안동7,  
8/24~27 대구17,  
10/3~6 수도원~부산8~마산6,  
10/12~16 울릉도, 독도~수도원  
출발: 서울 명동(가톨릭회관 후문)  
문의: 010-3807-1784

**해외 성지순례**

9/24 이탈리아 일주 [11일] 545만원(동반자 할인)  
10/7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13일](지향)  
10/7 체코, 폴란드, 발칸, 메주고리에 [13일]  
10/21 산티아고 118km 도보 순례 [12일]  
11/21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 발현지 [10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일본 성지순례 3박 4일**

도쿄, 오사카, 아키타, 북해도, 나가사키 120만원  
문의: 010-3645-9028

**해외 성지순례**

10/10~22 프랑스 바뇌 순례 570만원(대한항공)  
10/20~28 그리스 섬 순례 550만원(대한항공)  
11/18~21 나가사키현 고토 160만 원(고토 1박)  
문의: 02-852-8525

**예수마음선교수녀회 기도 장소 대관**

대상: 개인 및 소그룹(6명 이내)  
장소: 경기도 여주 신단2길 109-13  
구성: 경당, 개인 침실 6개, 거실 및 주방  
기타: 식사(직접 취사), 여주 전철역-자가용 10분  
문의: 031-885-5015

**대천해수욕장 요나 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피점,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문의: 041-934-7758  
<https://yonaesort.modoo.at/>

**순례 | 기타**

**해외 성지순례**

9/21 베트남, 마카오 [6일] 172만원  
10/15 산티아고 도보순례 [12일] 480만원  
10/24 발틱3국, 폴란드 [12일] 475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전국167, 제주3박 4일, 베트남, 일본, 마카오 성지순례**

매월 출발, 35만원 / 120만원  
문의: 010-4239-1929

**국내·외 성지순례**

·7/27 의정부교구: 주교좌 성당, 양주성지, 남종삼 요한 묘, 춘천교구(포천순교성지, 광암이벽의 묘)  
·7/13 희망의 순례: 베틀성지, 멩예목, 진안리, 봉암리  
·1차 7/1~7, 2차 7/8~14  
중국 성지순례: 백두산  
·베트남 다낭 성지: 9/6~10  
문의: 010-9200-3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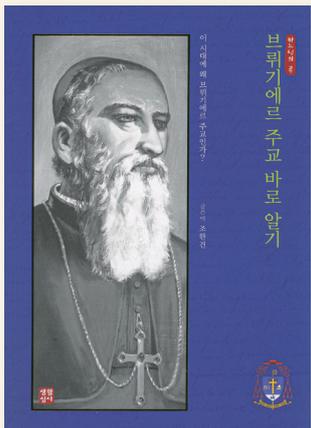
**성소모임**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일시: 언제나 열려있음  
대상: '답자' 나를 찾고자 하는 분들  
문의: 010-9304-0295 채 세실리아 수녀

**미리내 천주성상성직수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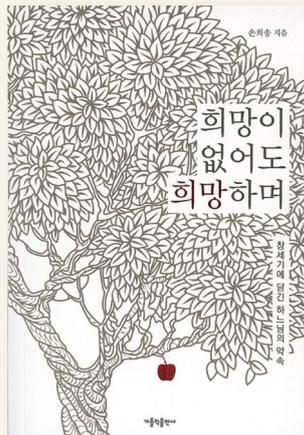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새로운 가족 모임  
대상: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  
문의: 010-5195-3217 성소부



**브뤼기에르 주교  
바로 알기**

이 시대에 왜 브뤼기에르 주교인가?  
초대 조선 대목구장 '하느님의 종'  
브뤼기에르 소(蘇)주교의  
조선 신자들을 향한 목숨을 건 여정

조한건 글쓰기  
생활성서 | 14,000원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창세기에 담긴 하느님의 약속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희망을 두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손희송 지음  
가톨릭출판사 | 16,000원

여성  
영성  
쌓기